

조기 해외 유학 중고생의 학교 적응과 관련변인 탐색*

권 미 경¹⁾

이 순 형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는 조기 해외 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구체화해 유학 대상 국가 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조기유학생들의 학교적응의 양상을 밝히고 이들의 적응을 도울 준거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인 중고생 4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학교생활만족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령, 유학 준비정도, 유학 전 한국에서의 학교성적, 유학기간, 외국어 실력, 유학 대상 국가를 밝혔고 그 중 유학 전 학교성적, 외국어 실력, 유학 대상 국가 변수가 학교적응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학교 성취가 높을수록, 유학기간이 길수록, 외국어 실력이 우수할수록 유학국에서의 학교 적응수준이 높음을 보여주며, 유학 가는 국가에 따라 학교적응 전반에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

주요어 : 조기해외유학,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학교생활만족도, 유학대상국가

* 이 논문은 2006년 11월 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에서의 조기유학에 대한 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논문임.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E-mail : mkay64@hanafos.com)

2) 공동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I. 서 론

우리 사회의 조기유학 현상은 이미 30년이 넘었지만, 최근의 세계화 추세와 우리 사회의 높은 자녀 교육열, 조기유학 규제 정책의 완화, 경제적 성장 등에 힘입어 그 열기를 점점 더해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 말까지 순수하게 유학을 위해 출국한 초·중·고교생이 사상 처음 2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는 전년도 16,446명 보다 약 24%가 증가한 것이며(연합뉴스, 2006년 10월 13일), 또 2005년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비용으로 국내에서 송금한 돈도 32%나 급증하여, 2조 2000여억 원에 달하는 등 한국은 해외유학으로 엄청난 국가사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간단히 한 단어로 ‘조기유학’이라 부르지만 그 동기나 목적, 사회경제적 여건, 유학가려는 대상 국가의 상황 등에 따라 그 양상은 다양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선행연구(2001)에서는 조기유학을 ‘초· 중등단계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외국으로 나가 현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으며, 조기유학에 대한 관련법규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 1호에서는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조기유학은 개인으로 보나 가정, 또는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 보나 경제적 심리적 으로 많은 비용이 투여되는 선택이며, 또 한번 결정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이다. 조기

해외 유학 선택 과정의 동기를 유인요인(pull factor)과 발인요인(push factor)으로 나누어 조사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6)에 의하면 조기 유학생들은 한국의 교육이 싫어서 떠나는 발인요인보다는 ‘나의 미래를 위하여’, ‘현지어를 잘하기 위하여’ 등과 같이 유학 가는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앞으로 발전을 기대하는 유인요인들에 의해 유학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이는 최근의 유학 경향이 성적이 낮아서 유학을 선택하거나, 중하위권 학생들이 국내에서의 교육 불만족으로 떠나는 도피형 유학이 아닌, 우수학생들이 조기유학 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기르고, 다양한 문화의 경험을 위하여 유학을 선택한다는 도약형 유학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선행연구들(박영숙·박광배·최상진·Marsella, 김주한, 2002; 조명덕, 2002)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결국 국외에서의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해 조기 해외 유학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유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이 새로운 학업환경에서 원만하게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문제로 여겨진다. 중고생들의 경우는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변화, 정체감 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 상 청소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장 급변의 시기에 자신이 친숙히 여기던 환경을 떠나 해외에서 전혀 새로운 유학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업임에 틀림없다. 조기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학업을 성취하는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고생들의 경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교사나 또래와 함께 학업과 관련

된 활동을 하며 보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적응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은 단순히 학업성취의 개념을 넘어서서, 학업 및 수업에의 적응과 교사나 교우, 또래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개념까지도 포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김용래, 2000; 이미라, 2000). 그러므로 조기 해외 유학생들의 학교적응은 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교사와 교우 등의 인적관계들을 포함하는 학교환경을 자신의 필요에 알맞게 변화시키거나 학습자 스스로가 그 환경을 수용하여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조기유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의식이나(한국교육개발원, 2005) 조기유학생 학부모의 의식(강지연, 2002; 윤혜준, 2005)에 대한 연구, 조기 유학생들의 실태파악(김영희·이지향·최명선, 2006; 김홍원, 2005; 김홍주, 2001; 안병철, 1996; 양정호, 2003; 한국교육개발원, 2006) 또는 학교 및 생활 적응, 상담을 포함하는 지원 활동에 대한 연구(한준상·기영화·강양원·박현숙·샤론메리엄, 2002; 박영숙 외, 2002; 박정희, 2006; 이기홍, 2005; 이미라, 2000), 기러기 가족으로 불리는 교육으로 인한 비동거 가족의 문제를 다룬 연구(안광복, 2004; 엄명용, 2002; 조은, 2004; 최양숙, 2004)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제까지 조기유학생의 적응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유학생들의 실태 조사, 유학 부적응 문제, 조기 유학생의 적응을 도우려는 상담적 접근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조기 유학생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중국 조기유학생을 대상으

로 그들의 유학 선택과 적응에 대해 조사한 연구결과(왕성성, 2005)에서 유학적응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한국에서의 성적과 중국어 실력이라 하였다. 미국의 북가주에서 유학하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5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안병철, 1996)도 유학 전 학교성적, 미국에서 공부한 기간, 현재의 영어능력이 학업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밝혔다. 아직까지 조기 해외 유학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선행연구들이 주는 의의는 크다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한 지역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수도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의 조기 해외유학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성별과 연령은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이다. 성공적인 조기유학을 위해서는 유학시기가 중요하다고 한 연구(송인호, 2001)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유학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있어 유학의 성패를 가른다면 유학 연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유학을 떠나기 전 한국에서의 학업성취 경험이나 상황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학 가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의 준비가 유학 가서 학교 적응에 효과적인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성적도 중요한 변수로 한국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을 경우에 유학 가서도 학업을 잘 수행했다고 하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많다(박영숙 외, 2002; 안병철, 1996; 왕성성, 2005). 세 번째로 유학기간(체류기간)이나 외국어 실력, 현지에서의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지의 여부 같은 요인들은 유학 간 현지에서 겪는 경험들과 관련된 부분들로 유학적응을 살필 때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유학국가에 유학한 기간(체류기간)은 언어 숙련정도나 사회문화적 친숙정도의 차이를 가져와 조기유학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유학생들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 중 가장 적응에 방해되는 요인은 ‘언어’라고 한다(박영숙 외, 2002). 공부하고 보고서 쓰고 토론을 하는 도구가 언어이므로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언어는 또한 교실 내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White & Brown의 미국 내에서 외국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안병철, 1996 재인용)에서도 약 30가지의 영향요인 중 영어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변수는 유학 대상 국가이다. 조기유학은 유학 대상 국가에 따라 입학허용기준, 교육체계, 교육 지원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므로, 조기유학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상황에도 분명 그 특성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에서 조기 해외 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에 영향 미칠 관련요인들을 요약해보면, 기본 인구배경 변수인 유학생의 성별과 연령을 비롯하여, 한국에서의 선행 준비와 관련된 유학준비정도, 한국에서의 성적, 유학 간 현지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유학기간, 외국어 실력, 사교육 도움여부, 그리고 유학하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유학 대상국가 등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다. 최근 조기유학의 추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선택하는 유학 대상 국가가 미국과 캐나다 중심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다양화되고 있다. 유학국은 국가마

다 문화가 다르고, 유학을 허용하는 기준이 다르며, 또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업을 위한 제반 여건들과 교육체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학 적응은 유학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조기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을 살펴볼 때도 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국가 간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증가하는 중고생 조기 유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구체화 시켜보고 유학 대상 국가 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조기유학생들의 적응실태를 밝혀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중고생 조기 해외유학생들의 유학 간 학교에서 학업 적응 뿐 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까지 포함하는 학교적응이란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지 구체화시켜봄으로써 청소년기 조기 해외 유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도울 방향을 모색할 준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기유학 중고생들의 학교적응(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학교생활 만족)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조기유학 중고생들의 학교적응(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학교생활 만족)은 유학 준비정도 및 유학전 성적 등 한국에서의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조기유학 중고생들의 학교적응(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학교생활 만족)은 유학기간이나 외국어 실력, 현지에서의 사교육 도움여부 등 유학국 현지에서의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조기유학 중고생들의 학교적응(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학교생활 만족)은 유학 대상국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급격하여, 발달과정 자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며, 어느 시기보다도 학업에 대한 노력과 성취가 강조되는 청소년기 조기유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조기유학생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및 중국의 조기 해외 유학 중고생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 7월 ~ 9월까지 2개월 동안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에 거주하는 조사원을 활용하거나 직접 조사원이 조사지에 가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 조기유학생의 경우, 필라델피아 및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여름방학을 맞아 일시 귀국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도 일부 조사를 실시하였다. 캐나다의 토론토,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중국의 상해, 심천, 심양 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주로 현지 교회 및 한국학교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또한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실시되는 캠프라든가 현지 노래방을 통해서도 하였다. 조기유학생이 직접 작성한 질문지는 조사원을 통해 수거되어 한국으로 전달되었다. 미회수 및 부실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110부, 캐나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427)

변 인	내 용	빈 도
성 별	남	196명(45.9%)
	여	226명(52.8%)
	무응답	5명(1.2%)
연 령	중학생	163명(38.2%)
	고등학생	264명(61.8%)
유학국가	미국	110명(25.8%)
	캐나다	95명(22.2%)
	뉴질랜드	106명(24.8%)
	중국	116명(27.2%)
유학기간	2년 미만	165명(38.7%)
	2년 이상 4년 미만	161명(37.7%)
	4년 이상	100명(23.4%)
	무응답	1명(0.2%)
현지 사교육	사교육 받음	259명(60.7%)
	사교육 받지 않음	164명(38.4%)
도움 여부	무응답	4명(0.9%)

95부, 뉴질랜드 106부, 중국 116부 등 총 427부의 질문지가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 청소년은 유학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하지 않고 순수하게 유학을 위해 단기 및 장기로 거주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표집하려 하였다. 표집된 연구 대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은 196명(45.9%), 여학생은 226명(52.8%)이며 중학생은 163명(38.2%)이고 고등학생은 264명(61.8%)이다. 유학기간은 2년 미만이 165명(38.7%)이고, 2년 이상 4년 미만이 161명(37.7%), 4년 이상 유학 중인 경우는 100명(23.4%)이었다. 현지에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259명(60.7%)이며,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164명(38.4%)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도구

학교적응 척도

이 연구에서는 학교라는 청소년기의 주 환경을 중심으로 조기 유학 중고생들의 학교적응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학교생활 만족도 척도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의 여러 영역을 중심으로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 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 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 대한 부분들로 구분하여 유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평가해 보게 했다. 김호권(1977)이 코리안 테스트 센터에서 개발한 중학생용 표준화 검사 ‘나의 학교’ 영역을 기초로 하여 총 14문항에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했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874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 중고생 유학생들의 학업에 잘 적응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유학 간 학교에서 수업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학업상황에 대해 물었다. ‘수업참여도’, ‘수업이해도’, ‘과제이해도’, ‘과제 성취도’, ‘시험성취도’라는 5개 영역에 대해 ‘거의 대부분 이해하지 못함’(1점), ‘잘 이해하지 못함’(2점), ‘잘 이해함’(3점), ‘항상 잘 이해함’(4점) 등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했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885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의

만족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현정(1997)의 학교적응척도, 권윤아(1997)의 학교생활불만족척도, 김희화(1998)의 학교생활만족도척도를 비교하여 간략하게 수정한 류광식(2002)의 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 ‘학교생활 만족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생활이 즐거운지, 학교에서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는지, 마음은 편한한지, 학교가 가고 싶은 곳인지, 그래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지를 물어 학교생활만족정도를 알아보려하였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906 으로 나타났다.

유학 준비정도 및 한국에서의 성적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부분으로 유학 준비가 어떤 측면에서 유학 가서의 학교 적응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살피려한 조사도구이다. 유학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현지어 준비’, ‘유학 가는 국가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준비’, ‘유학 갈 나라의 학교 생활에 대한 준비’, ‘혼자 생활하는 방법의 준비’로 구분하여 각각 5점 Likert 척도로 알아보았다. 한국에서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 ‘매우 잘함’(5점), ‘잘함’(4점), ‘보통’(3점), ‘잘 못함’(2점), ‘매우 못함’(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물었다.

유학기간, 외국어 실력 및 현지 사교육의 도움 여부

유학생들이 현지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부분으로 유학국가에 유학한 기간(체류기간)은 언어 숙련정도나 사회문화적 친숙도와 관련되어 조기유학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조사연구의 결과¹⁾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유학기간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외국어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유학생들에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구분하여 ‘매우 잘함’(5점), ‘잘함’(4점), ‘보통’(3점), ‘잘 못함’(2점), ‘매우 못함’(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했다. 현지에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지의 여부와 도움 받는다면 누구에게 어떤 부분을 도움 받는지 물었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질문지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와 백분율 등을 알아보고, 성별별, 연령별, 유학기간별, 유학 대상 국가별, 현지 사교육 도움여부 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원분산분석(F검증), 이원변량분석 및 삼원변량분석을 통해 집단차이를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1) 선행연구(이기홍, 2005)에서 유학기간과 관련해서는 6개월쯤 지나자 영어가 제법 들리기 시작하고, 대부분 2년 정도 지나자 일상의 대화에서 영어를 비교적 어려움 없이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 2004년 초에 캘리포니아 주의회 사무국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민 인구 중 한국출신 학생들은 영어숙달에 평균 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4년 2월 16일자).

응답한 조기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3.58점($SD=.64$)으로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적응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일반영역, 교사영역, 수업영역, 교우영역, 학교규칙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영역은 평균 3.55점($SD=.82$), 교사영역은 3.09점($SD=.84$), 수업영역은 3.55점($SD=.78$), 교우영역은 3.82점($SD=.77$), 학교규칙영역은 3.58점($SD=.63$)으로 나타나, 조기유학생들은 대체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즐겁고,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학교 선생님은 자기에게 친절하다고 느끼고, 수업시간이 재미있고, 학교 물건도 내 물건처럼 소중하게 사용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와 관련한 학교적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교사와 관련한 학교적응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학 간 학교에서 실질적인 학업상황에 잘 적응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업, 과제, 시험에 대한 이해와 참여정도를 묻은 학업적응의 결과는 응답학생 413명의 평균이 4점 만점에 3.14점($SD=.59$)으로 다소 높은 편이다. 응답한 유학생들이 대체로 수업을 잘 이해하고 참여하며, 과제도 잘 수행하며, 시험의 내용도 잘 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운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생활은 즐거운가, 학교에서 마음이 편한가,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는가, 학교에 가고 싶은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응답한 조기유학생들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58점($SD=.64$)으로 나타나서 학교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조기해외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 다른 조기 해외 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한 각 하위 항목의 평균점수는 학교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및 연령에 생활적응도는 5점 만점에 3.58점($SD=.64$), 학

표 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해외유학생의 학교적응 빈도

연령	성별(N)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학교생활만족
		M(SD)	M(SD)	M(SD)
중학생	남학생(58)	3.70(.64)	3.24(.56)	3.79(1.01)
	여학생(84)	3.55(.63)	3.09(.69)	3.62(.95)
	전체(142)	3.61(.64)	3.15(.64)	3.69(.97)
고등학생	남학생(119)	3.50(.65)	3.12(.58)	3.34(1.03)
	여학생(123)	3.60(.62)	3.21(.49)	3.41(.87)
	전체(242)	3.55(.63)	3.17(.54)	3.38(.95)
전체	남학생(177)	3.57(.65)	3.16(.58)	3.49(1.04)
	여학생(207)	3.58(.62)	3.16(.58)	3.49(.91)
	전체(384)	3.58(.64)	3.16(.58)	3.49(.97)

표 3.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조기 해외 유학생들의 학교적응 변량분석

구 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 교 적 응	성별	.07	1	.07	.17
	연령	.45	1	.45	1.13
	성별x연령	1.45	1	1.45	3.62
	오차	152.48	380	.40	
학 업 적 응	성별	.10	1	.10	.30
	연령	6.19	1	6.19	.00
	성별x연령	1.15	1	1.15	3.44
	오차	126.88	380	.33	
학 교 생 활 만 족	성별	.23	1	.23	.25
	연령	9.28	1	9.28	10.10 **
	성별x연령	1.18	1	1.18	1.29
	오차	349.06	380	.92	

** $p < .01$

업적응도는 4점 만점에 3.16점($SD=.58$), 학교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9점($SD=.97$)이었다. 중앙값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세 개의 점수는 중앙값을 다소 넘는 수치이다. 즉 학교 생활적응, 학업적응과 학교생활만족이 다소 긍정적이다.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조기 해외 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시된 표 3과 같이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적응에 학년이나 성별 효과, 또는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학교적응에는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연령에 따른 주효과($F=10.10, p<.01$)는 유효하여, 중학생들($M=3.69, SD=.97$)이 고등학생들($M=3.38, SD=.95$)보다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다.

즉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이 즐겁고, 학교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학교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학 준비정도 및 한국에서의 성적에 따른 조기해외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

조기 해외 유학생들이 유학을 위한 준비를 보면, 5점 만점에 평균 2.21점($SD=.91$)으로 유학준비를 별로 하지 않았다. 유학 준비에 대해 세분화 시킨 질문에 응답 결과를 보면 ‘현지어 준비’($M=2.45, SD=1.18$), ‘유학 가는 국가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준비’($M=2.10,$

$SD=1.10$), ‘유학 갈 나라의 학교생활에 대한 준비’($M=2.20, SD=1.16$), ‘혼자 생활하는 방법의 준비’($M=2.10, SD=1.17$)로 응답해서 전반적으로 유학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지만 현지어에 대해 그 중 많이 준비한다고 했다.

유학 가는 국가별로 유학준비정도를 살펴보면 중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의 준비정도($M=1.96, SD=.87$)가 미국($M=2.56, SD=.90$), 캐나다($M=2.13, SD=.90$), 뉴질랜드($M=2.17, SD=.88$) 등 다른 나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의 경우보다 낮다. 응답한 408명의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유학전 성적은 5점 만점에 평균 3.4점($SD=1.02$)으로 보통보다 약간 잘한다고 응답했다. 유학가기 전 한국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부분인 유학준비정도와 한국에서의 성적에 따른 조기 해외 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한 각 하위 항목의 평균점수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기해외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이 유학준비정도 및 한국에서의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교적응 중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유학준비정도의 주효과($F=3.98, df=1, p<.05$)와 한국에서의 성적 주효과($F=14.85, df=1, p<.001$)가 유의하며,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이는 많은 유학준비를 한 학생들($M=3.68, SD=.59$)이 적은 준비를 한 학생들($M=3.52, SD=.67$)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함을 의미하며, 또 유학전 한국 학교 성적이 중상인 학생들이($M=3.73, SD=.66$) 한국 학교 성적이 중이하인 학생들($M=3.46, SD=.59$) 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함을 보여준다.

표 4. 유학 준비정도 및 한국에서의 성적에 따른 해외유학생들의 학교적응 빈도

유학준비정도	한국 학교 성적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학교생활만족
		M(SD)	M(SD)	M(SD)
적은 준비	중이하(108)	3.43(.59)	3.04(.61)	3.28(1.02)
	중상(80)	3.63(.74)	3.24(.62)	3.63(1.06)
	전체(188)	3.52(.67)	3.12(.62)	3.42(1.05)
많은 준비	중이하(80)	3.51(.58)	3.08(.53)	3.32(0.82)
	중상(94)	3.82(.57)	3.32(.50)	3.76(.90)
	전체(174)	3.68(.59)	3.21(.53)	3.56(.89)
전체	중이하(188)	3.46(.59)	3.06(.58)	3.30(.94)
	중상(174)	3.73(.66)	3.28(.56)	3.70(.98)
	전체(362)	3.59(.64)	3.17(.58)	3.49(.97)

표 5. 유학 준비정도 및 한국에서의 성적에 따른 해외유학생의 학교적응 변량분석

구 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	유학준비정도	1.53	1	1.53	3.98*
	학교생활	5.71	1	5.71	14.85***
	적응	유학준비정도x한국 학교 성적	.26	1	.26
	오차	137.73	358	.39	
교	유학준비정도	.31	1	.31	.96
	학업적응	4.38	1	4.38	13.64***
	적응	유학준비정도x한국 학교 성적	0.23	1	.070
	오차	115.11	358	.32	
응	유학준비정도	.70	1	.70	.76
	학교생활	13.80	1	13.80	15.04***
	만족	유학준비정도x한국 학교 성적	0.19	1	.28
	오차	328.51	358	.92	

* $p < .05$, *** $p < .001$

학교적응 중 학업적응에 대한 측면을 살펴 보면, 한국에서의 성적 주효과($F=13.64$, $df=1$, $p<.001$)가 유의하며, 유학준비도의 주효과나

한국에서의 성적과 유학준비도,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유학전 한국학교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학

업적응 점수($M=3.28$, $SD=.56$)도 중이하인 학생들의 학업적응($M=3.06$, $SD=.58$)점수에 비해 더 높아($F=13.64$, $p<.001$), 유학 중 학업에 더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학교생활 만족에서도 한국에서의 성적 주효과($F=15.04$, $df=1$, $p<.001$)만 유의하며, 유학준비도나 한국에서의 성적과 유학준비도,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학전 학교성적이 중상인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M=3.70$, $SD=.98$)이 유학전 학교성적이 중이하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M=3.30$, $SD=.9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학전 학교성적이 우수했던 유학생들이 학교성적이 낮았던 유학생들보다 유학국의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학기간, 현지에서의 사교육 도움 여부, 외국어 실력에 따른 조기해외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

유학국가에서 체류한 유학기간은 2년 미만 체류한 경우가 165명(38.7%), 2년에서 4년 미만으로 체류한 경우가 161명(37.7%), 4년 이상 체류한 경우는 100명(23.4%), 무응답 1명(0.2%)이다. 응답한 학생 중 60%(259명)이상이 학교 교사 이외의 조력자로부터 현지에서의 학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유학국가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중복 응답한 결과, 개인과외교사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152명, 38.9%), 다음으로 학원(97명, 24.8%) 부모님(54명, 13.8%), 형제자매(38명, 9.7%)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기해외 유학생들은 유학국에서도 개인지도와 학원지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기 해외유학 중고생들이 5분 척도로 응답한 현재 자신의 외국어 실력은 평균 3.51점($SD=.92$)으로 보통보다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어 실력을 ‘말하기’($M=3.54$, $SD=1.06$), ‘듣기’($M=3.67$, $SD=1.00$), ‘읽기’($M=3.52$, $SD=.99$)와 ‘쓰기’($M=3.31$, $SD=1.02$)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듣기 영역을 가장 잘한다고 응답한 반면 쓰기 영역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유학 가서 현지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부분인 유학기간, 현지에서의 사교육 도움 여부, 외국어 실력에 따른 조기 해외 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한 각 하위 항목의 평균점수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에 나타난 유학기간, 현지에서의 사교육 도움 여부, 외국어 실력에 따른 해외유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사교육 도움여부와 유학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니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직접적 효과를 언급하기 어려우나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련의 경향성이 보인다.

즉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의 학교적응이 유학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생활측면, 학업적인 측면, 만족도의 측면 모두에서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사교육의 도움이 처음 학교적응에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성취동기가 약화되어 학교생활 전반의 적응력을 감소시키는 듯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교육 도움이 없었던 학생들의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더 향상됨을 시사한다.

유학기간, 현지에서의 사교육 도움 여부, 외국어 실력에 따라 조기해외유학 중고생의 학

표 6. 유학기간, 현지에서의 사교육 도움 여부, 외국어 실력에 따른 해외유학생들의 학교적응 빈도

유학기간	사교육 도움여부	외국어 실력(N)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학교생활만족
			M(SD)	M(SD)	M(SD)
2년 미만	사교육 받음	저조(49)	3.53(.60)	2.89(.60)	3.49 (.93)
		우수(40)	3.73(.56)	3.18(.58)	3.59 (.84)
		전체(89)	3.62(.59)	3.02(.61)	3.53 (.89)
	사교육 받지않음	저조(29)	3.33(.52)	2.73(.55)	2.96 (.75)
		우수(32)	3.48(.86)	3.14(.61)	3.39 (1.12)
		전체(61)	3.41(.72)	2.95(.61)	3.18 (.98)
	전체	저조(78)	3.46(.58)	2.83(.59)	3.29 (.90)
		우수(72)	3.62(.72)	3.16(.59)	3.50 (.97)
		전체(150)	3.54(.65)	2.99(.61)	3.39 (.94)
2년이상 4년미만	사교육 받음	저조(35)	3.34(.42)	3.03(.56)	3.25 (.93)
		우수(57)	3.80(.56)	3.31(.43)	3.82 (.86)
		전체(92)	3.63(.56)	3.20(.50)	3.61 (.93)
	사교육 받지않음	저조(21)	3.36(.57)	3.01(.43)	3.13 (.92)
		우수(33)	3.65(.68)	3.36(.47)	3.55 (1.08)
		전체(54)	3.54(.65)	3.22(.48)	3.39 (1.03)
	전체	저조(56)	3.35(.48)	3.03(.51)	3.21 (.92)
		우수(90)	3.75(.61)	3.33(.44)	3.72 (.95)
		전체(146)	3.59(.59)	3.21(.49)	3.52 (.97)
4년 이상	사교육 받음	저조(7)	3.06(.89)	2.80(.60)	3.11 (1.50)
		우수(45)	3.68(.60)	3.42(.55)	3.68 (.89)
		전체(52)	3.60(.67)	3.34(.59)	3.60 (.99)
	사교육 받지않음	저조(5)	3.36(.57)	3.28(.54)	3.44 (1.25)
		우수(33)	3.72(.72)	3.41(.59)	3.63 (1.05)
		전체(38)	3.67(.71)	3.39(.58)	3.61 (1.06)
	전체	저조(12)	3.18(.75)	3.00(.60)	3.25 (1.35)
		우수(78)	3.70(.65)	3.42(.57)	3.66 (.95)
		전체(90)	3.63(.68)	3.36(.58)	3.60 (1.01)
전체	사교육 받음	저조(91)	3.42(.58)	2.94(.59)	3.37 (.98)
		우수(142)	3.74(.57)	3.31(.60)	3.71 (.86)
		전체(233)	3.62(.59)	3.16(.58)	3.58 (.92)
	사교육 받지않음	저조(55)	3.34(.54)	2.89(.53)	3.07 (.86)
		우수(98)	3.62(.76)	3.30(.56)	3.52 (1.07)
		전체(153)	3.52(.70)	3.15(.59)	3.36 (1.02)
	전체	저조(146)	3.39(.56)	2.92(.56)	3.26 (.95)
		우수(240)	3.69(.65)	3.31(.54)	3.64 (.96)
		전체(386)	3.58(.64)	3.16(.58)	3.49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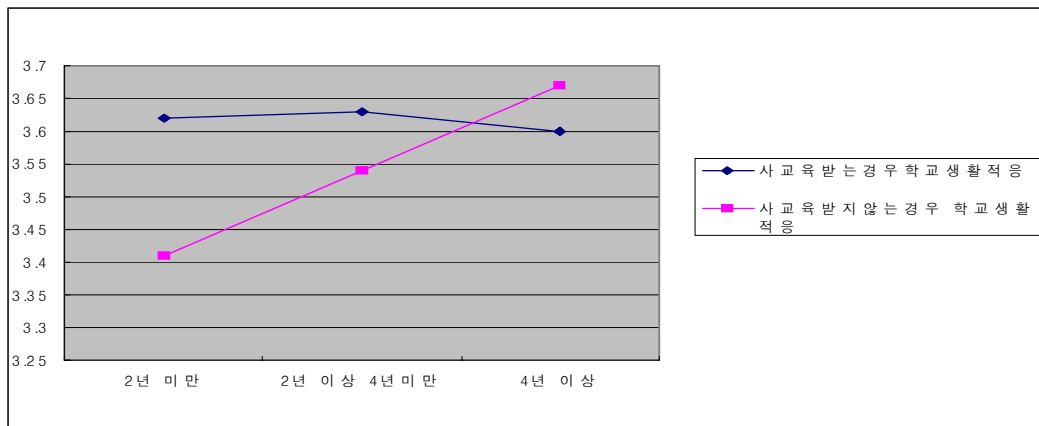


그림 1. 사교육 도움여부와 유학기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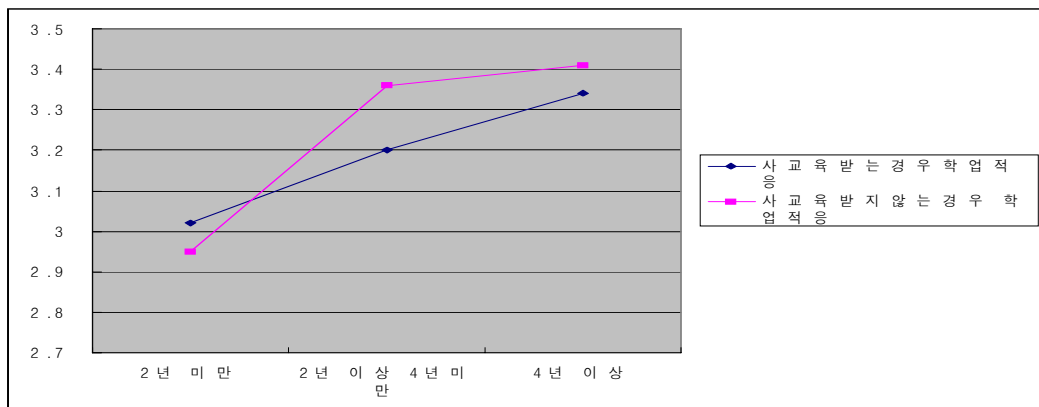


그림 2. 사교육 도움여부와 유학기간에 따른 학업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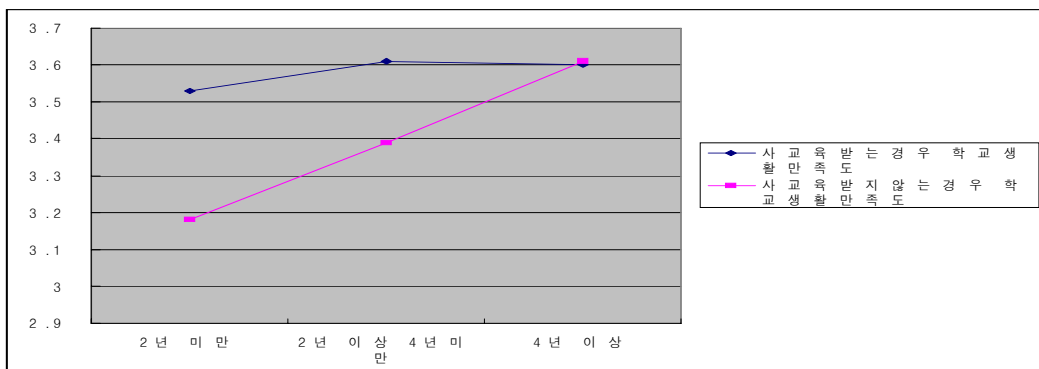


그림 3. 사교육 도움여부와 유학기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표 7. 유학기간, 현지에서의 사교육 도움 여부, 외국어 실력에 따른 조기해외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 정도의 변량분석

구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교 생활 적응	유학기간	.22	2	.11	.28
	사교육여부	.10	1	.10	.26
	외국어실력	6.90	1	6.90	17.96***
	유학기간x사교육여부	1.32	2	.66	1.72
	유학기간x외국어실력	1.11	2	.56	1.45
	사교육여부x외국어실력	.36	1	.36	.93
	유학기간x사교육x외국어	.11	2	.06	.15
	오차	143.70	374	.38	
학 교 적 응	유학기간	3.29	2	1.65	5.58**
	사교육여부	.14	1	.14	.46
	외국어실력	6.82	1	6.82	23.13***
	유학기간x사교육여부	.88	2	.44	1.50
	유학기간x외국어실력	.04	2	.02	.07
	사교육여부x외국어실력	.14	1	.14	.48
	유학기간x사교육x외국어	.79	2	.40	1.34
	오차	110.28	374	.30	
학교 생활 만족	유학기간	.64	2	.32	.35
	사교육여부	1.16	1	1.16	1.28
	외국어실력	8.17	1	8.17	9.04**
	유학기간x사교육여부	2.08	2	1.04	1.15
	유학기간x외국어실력	.89	2	.44	.49
	사교육여부x외국어실력	.07	1	.07	.08
	유학기간x사교육x외국어	1.51	2	.76	.84
	오차	338.33	374	.91	

** $p < .01$, *** $p < .001$

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학교적응 중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외국어실력의 주효과($F=17.96$, $df=1$, $p<.001$)가 유의하며, 유

학기간이나 사교육여부 또는 변수 간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이는 외국어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측면에서의 평균점수($M=3.69$, $SD=$

.65)가 저조한 학생들의 평균점수($M=3.39$, $SD=.56$)보다 유의하게 높아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적응 중 학업적응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면, 유학기간의 주효과($F=5.58$, $df=2$, $p<.01$)와 외국어실력의 주효과($F=23.13$, $df=1$, $p<.001$)가 유의하며, 사교육 여부나 변수 간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학업적응 면에서 유학기간이 2년 미만($M=2.99$, $SD=.61$), 2년 이상 4년 미만($M=3.21$, $SD=.49$), 4년 이상($M=3.36$, $SD=.58$)으로 증가하면서 적응도가 유의하게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 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학교적응의 학업적응 측면에서의 평균점수($M=3.31$, $SD=.54$)가 저조한 학생들의 평균점수($M=2.92$, $SD=.54$)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는 유학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외국어 실력이 우수할수록 수업이나, 과제수행, 시험 평가 같은 실제 학업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적응 중 학교생활만족에 대해 살펴보면, 외국어 실력의 주효과($F=9.04$, $df=1$, $p<.01$)가 유의하며, 유학기간이나 사교육 여부나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경우($M=3.64$, $SD=.96$)가 저조한 경우($M=3.26$, $SD=.95$)보다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다.

유학 대상국가에 따른 조기해외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

표 8에는 유학대상국가 별로 조기해외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한 각 하위 항목의 평균점수를 제시하였고, 현재 유학하고 있는 나라에 따른 조기해외유학 중고생 학교적응의 차이를 보기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상했던 것처럼 제시된 표 9에서와 같이 유학 간 국가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도, 학교생활만족정도 등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우선 현재 유학 간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면에서는 미국($M=3.79$, $SD=.62$) 및 캐나다($M=3.66$, $SD=.66$)에서 유학하는 조기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뉴질랜드($M=3.43$, $SD=.60$) 및 중국($M=3.44$, $SD=.60$)에서 유학하는 중고생의 학교생활적응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8.09$, $p<.001$). 수업 참여와 과제 수행 같은 학업에의 적응에서도 미국($M=3.29$, $SD=.47$)이나 캐나다($M=3.24$, $SD=$

표 8. 유학대상국가에 따른 해외유학생의 학교적응 빈도

유학대상국가(N)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학교생활만족
	M(SD)	M(SD)	M(SD)
미국(110)	3.79(.62)	3.29(.47)	3.69 (.93)
캐나다(93)	3.66(.66)	3.24(.60)	3.72 (1.01)
중국(115)	3.44(.60)	2.99(.61)	3.18 (1.00)
뉴질랜드(106)	3.43(.60)	3.08(.63)	3.42 (.86)
전체(424)	3.58(.64)	3.15(.59)	3.49 (.97)

표 9. 유학대상국가에 따른 조기해외유학 중고생 학교적응 정도

변수	구분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교생활적응	집단-간	9.30	3	3.10	8.09***
	집단-내	151.76	396	.38	
학업적응	집단-간	5.96	3	1.99	5.96***
	집단-내	136.23	409	.33	
학교생활만족	집단-간	21.29	3	7.10	7.83***
	집단-내	380.46	420	.91	

*** $p < .001$

.60)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뉴질랜드($M=3.08$, $SD=.63$) 및 중국($M=2.99$, $SD=.61$)에서 유학하는 학생들보다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고생 유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생활 전반에 보이는 만족 정도에도 국가별 차이를 보여서 ($F=7.83$, $p<.001$) 캐나다($M=3.72$, $SD=1.01$)와 미국의 유학생들($M=3.69$, $SD=.93$)이 뉴질랜드($M=3.42$, $SD=.86$)나 중국 유학생들($M=3.18$, $SD=1.00$)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의 만족 정도가 낮은 것이 문제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조기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미국,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4개국에서 유학하는 청소년 427명을 대상으로 조기 유학생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배경변인들을 찾아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조기 해외유학 중·고생들은 학년을 중심으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에 따라서 학교 적응

에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들은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생활 만족하는 정도가 높아 학교생활이 즐겁고, 학교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학교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덜 받아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반대로 고등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외조기 유학생들이 유학 중 적응을 살펴본 결과, 유학 전에 유학국의 언어나 기타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대응할 준비를 했는지가 중요한 적응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중·고생들은 유학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향을 보이나 그중에서는 외국어에 대한 준비를 가장 많이 하며, 유학 준비를 많이 한 조기유학생들일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기유학생의 학교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유학 전 한국에서의 학교성적이다. 조기 유학 이전 한국

에서의 성적이 좋을수록 현지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유학 이후 학교생활 적응도 잘 하며 따라서 전반적인 학교생활에도 만족하고 있다. 학교적응을 환경, 교사, 수업, 교우, 규칙에 대한 적응으로 세분화 시켜보아도 이 모든 하위 영역들이 한국에서의 학교성적과 유의미하게 관련됨을 보여 한국에서의 유학가기 전 성적이 좋을수록 유학 간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더 잘 적응하고 있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박영숙 외, 2002; 안병철, 1996; 왕성성, 200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유학생들이 유학국가에 유학한 기간(체류기간)이 언어 숙련정도나 사회문화적 친숙도와 관련되어 조기유학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유학기간에 따라 현재 학업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유학국가에 체류하는 유학기간이 늘어날수록 현지에서의 경험이 풍부하여 유학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학교에서 수업에 잘 참여하고 이해도 잘하며,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시험내용도 잘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여러 유학준비 중 외국어의 준비를 그 중 많이 한다고 하였는데 외국어 능력은 학습과 대인관계의 도구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은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학교생활 만족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관련된다. 외국어를 잘 할수록 유학 간 학교에서 교사와 또래와 친밀하고 학교규칙도 잘 지키는 등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며, 수업이나 과제 등의 학업에 대한 적응도 잘하고, 그로 인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외국어의 숙련정

도가 유학국에서의 학교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미국에 일시 거주하는 청소년의 적응에 대해 연구했던 박영숙 등(2002)의 연구나 중국 북경에서 조기유학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왕성성(2005)의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외국어 준비정도가 유학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유학국의 특성에 따라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 영역인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학교생활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 국가마다 문화가 다르고, 유학을 허용하는 기준이 다르며, 또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업을 위한 제반 여건들과 교육체계에 차이가 있어서 유학국가에 따라 유학의 실상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미주 지역이라도 미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학생의 공립학교 입학이 허용되지 않아, 비용이 들더라도 기숙사가 있는 사립학교를 선택하게 되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유학생의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고, 또 기숙사가 준비된 사립학교가 적으며,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유학에 동반하는 기러기 가족이라 불리는 유학과 교육을 위한 이민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는 부모의 직장 이주로 인한 유학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익히리라 기대하는 국제 학교로의 유학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6). 이처럼 중고생 해외 조기유학의 형태나 상황은 유학 대상 국가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므로, 조기유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상황에도 그 특성들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같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더라도 미국과 캐나다로 유학하는 경우가 뉴질랜드의 경우에 비해 학

교적응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중국에 유학하는 경우에는 학교적응이나 만족 정도가 다른 나라 유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동양문화권이라 쉽게 적응하리라고 기대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여건이 한국과 많이 다르고, 중국어의 학습이 쉽지 않음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인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학교에서의 학습에 적응하는데는 상대적으로 친숙했던 영어 사용에 적응하는데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에서의 학교성적과 외국어 실력이 조기 해외 유학생의 학교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에서 학교적응을 잘하는 경우에 유학 가서도 더 잘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연구 대상의 전반적인 결과가 대체로 유학 가서의 현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였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박영숙 외, 2002; 조명덕, 2002; 한국교육개발원, 2006)에서 지적했던 부분인 한국에서의 공부가 어렵거나 적응하지 못해 도피성 유학을 떠나기보다는 도약성 유학이 증가한다는 측면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조기유학생들의 유학적응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가 한국에서의 성적과 중국어 실력 선행연구(왕성성, 2005)의 결과가 유학 대상 국가를 4개국으로 확대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질문지를 통해 응답 학생 자신이 스스로의 적응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

이므로,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으나 실제 성적과 외국어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를 교사에게 직접 묻는다든지, 등수를 기록하든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성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고등 학생들에게는 조기 해외 유학생 본인이 체감하는 평가가 실제적인 학교적응 여부에는 더 영향을 미치는 응답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최근의 유학의 추이중 하나인 유학 국가가 다변화 된다는 점을 반영한 조기 해외 유학 청소년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학국가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려한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학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준비와 외국어의 준비가 성공적 학교적응에 필수적임을 시사하며, 성공적 유학을 위한 현실적인 인식과 준비를 도울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도 지닌다.

후속연구로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최근 조기 해외 유학을 떠나는 초등학생이 급증하는 추이를 반영하여 조기 유학 초등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유학생들의 학교적응 뿐 아닌 교우관계나 사회 정서적 부분을 반영한 정의적 측면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조기유학의 유형을 고려한 조기유학에 대한 유형별 연구도 제안한다.

참고문헌

강지연 (2002). 학부모의 교육의식과 자녀 조기

- 유학 선택-서울 강남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2006. 10. 13). 2005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 김영희, 이지향, 최명선 (2006). 뉴질랜드 거주 조기 유학생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지원 방안. 청소년학연구, 13(1), 55-84.
- 김용래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 3-37.
- 김호권 (1977). 중학생용 표준화 검사. 코리안 테스트 센터.
- 김홍원 (2005). 조기유학: 국민의식과 실태. 제 26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 김홍주 (2001). 조기유학(유학이민)의 현황 및 국민의식 분석. 제 1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3-42.
- 류광식 (200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가정 생활만족도 및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박광배·최상진·Marsella,A.·김주한,(2002). 미국 일시거주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촉진을 위한 인터넷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1(2), 97-139.
- 박정희 (2006). 미국 조기 유학생들의 현지 생활 적응과 상담활동.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호 (2001). 조기유학 그 문제점과 처방. 서울교육, 163, 22-26.
- 안광복 (2004). 조기유학과 기러기 가족. 철학과 현실, 60, 124-130.
- 안병철 (1996). 조기유학의 현황과 과제: 북가주 조기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96년 후기 사회학대회 자료집.
- 양정호 (2003). 조기유학, 실태 및 해결책은? 새교육, 590, 72-75.
- 엄명용 (2002).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 문제: 기러기 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25-43.
- 왕성성 (2005). 한국인 중국 조기 유학생의 유학 선택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준 (2005). 조기유학을 고려하는 학부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홍 (2005). 미국으로의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 열망. 사회과학연구, 44, 105-121.
- 이미나 (2001).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45-62.
- 이미라 (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덕 (2002). 조기 유학 붐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현상과 인식. 26(4), 135-152.
- 조은 (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신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연구”. 경제와 사회, 64, 148-171.
- 최양숙 (2004). 비동거 가족경험: ‘기러기아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01).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명암. 2001년 KEDI

- 교육정책포럼. 연합뉴스, 2006년 10월 13일
- 한국교육개발원 (2005).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
식 조사 연구: 규제순응도를 중심으로. 조선일보, 2004년 2월 16일
- 정책연구과제 2005-지정-41. 서울: 교육
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2006). 인간발달학적 관점에
서 본 조기유학의 득과 실. 수탁연구
CR2006-38.
- 한준상 · 기영화 · 강양원 · 박현숙 · 샤론메리
엄,(2002). 조기유학생 적응지도에 관한
연구: 조기유학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
안, 청소년학연구, 9(1), pp199-220.
- 1 차원고접수 : 2007. 07. 01.
수정원고접수 : 2007. 09. 02.
최종게재결정 : 2007. 09. 04.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broad at an Early Age and Related Variables

Me-Kyung Kwon

Soon-Hyung Yi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the variables negatively affecting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study abroad, and identifies the differences in experiences between 4 countrie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42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tudying in the U.S., Canada, China and New Zealand to determine school adjustment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Variables in school adjustment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tudying abroad included age, the extent of preparation before study abroad, student GPA in Korean schools, the time studying abroad, language skills and the target countries. The most decisive variables affecting all aspects of school adjustment were student GPA in Korean schools, language skills and the target countries. Student GPA, skill in foreign langua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country are critical in preparation to study abroad. The findings in part, support the recent trend of increasing numbers of students studying abroad, not to avoid challenging school life or study in Korea, but to advance themselves further, as some antecedent research indicated.

Key words : study abroad at an early age, adapting to school life, adapting to study,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target study abroad country